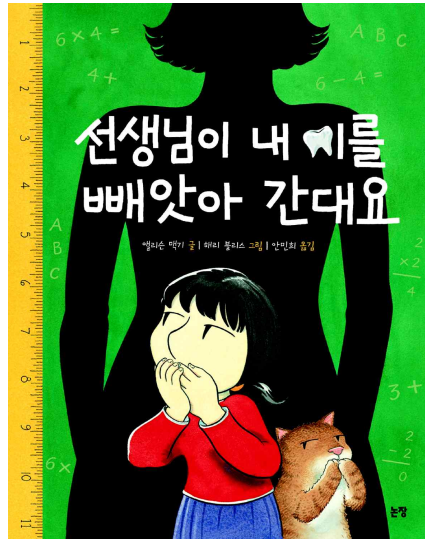


선생님이 내 마음을 배배앗아 간대요



처음 학교 가는 날의 초조함과 이가 처음 빠질 때의 두려움에서
벗어나게 해 주는 따뜻하고 유머 넘치는 이야기.

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웃음을 주며
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훌륭한 책.

앨리스 맥기 글 / 해리 블리스 그림 / 36쪽

독서활동 목표

1.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.
2.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감정에 대해 알 수 있다.
3.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써 볼 수 있다.



1.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어요. 그때를 잘 떠올리면서 느낌 중심으로 적어 봅시다.

학교에 처음
등교할 때의 마음은?

처음 들어간
교실은?

입학식 날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
그림으로 그려 봅시다.

처음 만난
반 친구들은?

처음 만난
담임 선생님은?



아래 그림을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그림과 관련한 이야기의 내용을 채워 넣으세요.

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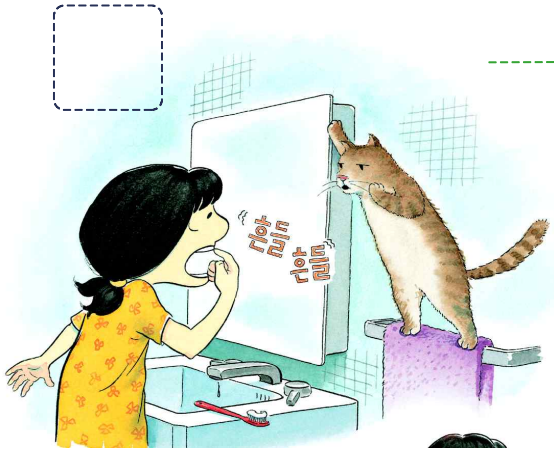
오늘부터 학교에 가는 날이에요
그런데 이 학년 언니의 말로는 일 학년
선생님은 나이가 ()살이나
먹은 외계인이라는 거예요. 게다가 지
구 아이들의 이를 노리고 있다고 했어
요.

수업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발표도
하고 싶었지만 나는 ()을 꼭
다물고 있기로 했어요.



나는 선생님의 ()를
잘 살펴봤어요. 선생님 귀고리도요.





사실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요.
내 비밀은 ()가 흔들린다는
거예요. 난생처음으로요.

쉬는 시간에 이 학년 언니는 선생님의
()를 봤냐고 물었어요.



7



알고 보니 () 안에는 막
대사탕을 비롯한 여러 과자가 들어
있었어요.

선생님은 이가 빠지면 ()
를 준다고 했어요. 하지만 나는 믿을
수 없었어요.





책을 읽고 등장인물의 마음이 되어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

수업 시간에 왜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니?

.....

.....

.....

선생님은 왜 과자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가 빠진 아이에게 과자를 주신 건가요?

.....

.....

.....



1학년 후배에게 선생님이 외계인이고 이를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야?



.....

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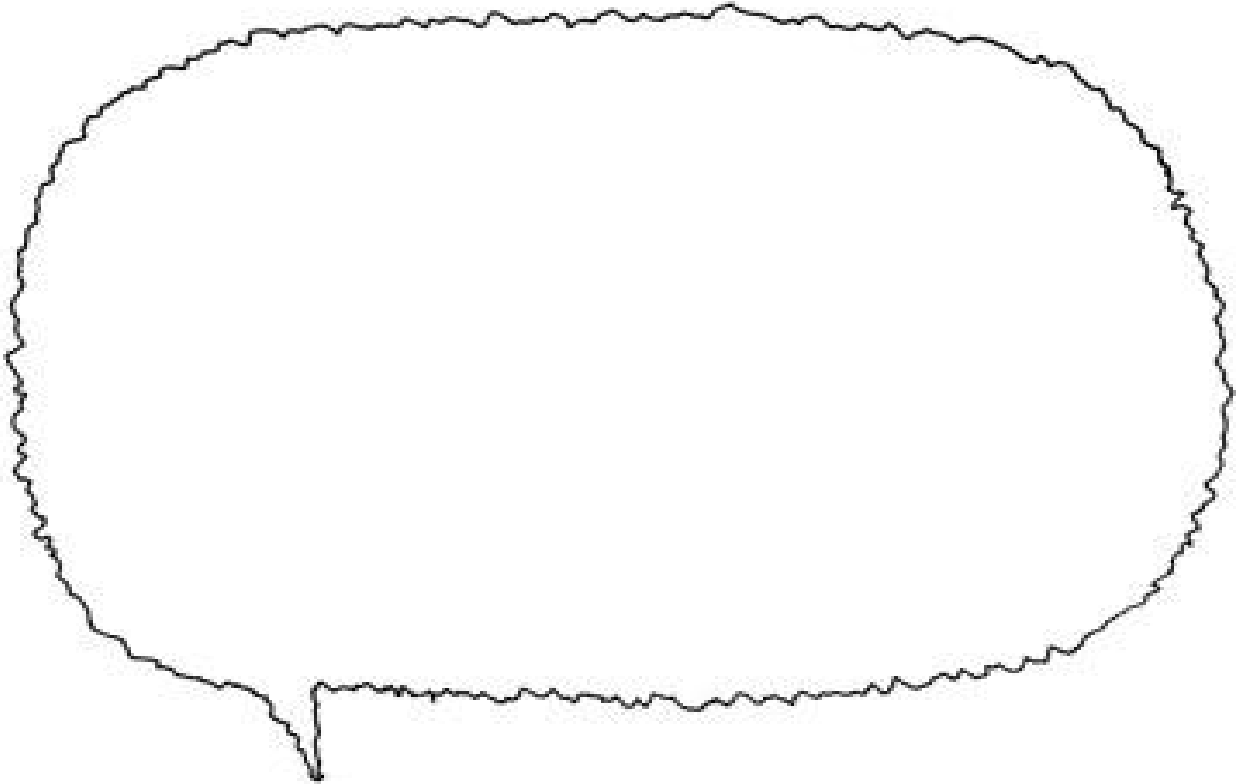
.....

.....



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속마음을 적어 보세요.

이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. 주인공은 수업이 끝난 후 어땠냐고 묻는 이 학년 언니에게 “그렇게만 알고 있어!”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때 주인공이 속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감추고 있었을까요?





1. 이 학년이 되어 일 학년 후배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. 후배에게 꼭 해 주고 싶은 학교 생활 비법을 적어 보세요.

2.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봅시다.



보충자료_이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!

사람은 태어난 이후 5~6개월경부터 이가 나기 시작해요. 이때 나는 이를 젓니 또는 유치라고 합니다. 유치는 위아래 20개가 나는데, 생후 6년경이 지나면 유치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영구치(또는 간니)가 나는 거예요. 32개의 영구치가 다 나기까지는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. 책의 주인공처럼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는 어린이의 경우 한창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이지요. 누구나 이가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, 영구치가 자리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편안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.



 주인공이 겪은 오늘 하루 생활을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일기로 표현해 봅시다.



월 일 날씨

[illegible]